

‘나 혼자 산다’ 34.5%...이 중 61%, 연소득 3천만원 미만

통계청, ‘2023 통계로 보는 1인 가구’...비중 35%
1인 가구 중 31%만 주택소유...12평 이하 거주
월 보건지출 13만원...절반은 노후비 직접 마련

지난해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34.5%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 건너 한 집은 혼자 사는 가구로, 이들 중 61%는 연소득이 3000만원 미만이었다. 절반 이상이 12.1평 이하에 거주하고 있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4.5%인 750만2000가구로 집계됐다. 1인 가구의 비중은 전년보다 1.0%포인트(p) 늘었고, 가구 중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42.6%는 서울·경기 거주...4.5가구 서울 순유입

1인 가구 중 가장 많은 나잇대는 청년들이었다. 29세 이하 1인 가구가 19.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70세 이상 18.6%, 30대 17.3%, 60대 16.7% 순이었다.

남자 1인 가구 중 연령대 비중이 가장 높은 나잇대는 30대(22.0%)였고, 여자 1인 가구에서는 70세 이상(27.9%)에서 비중이 가장

컸다.

1인 가구 10가구 중 4가구(42.6%)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대전(38.5%), 서울(38.2%), 강원(37.2%) 순이었다.

1년 전 거주지 기준으로 시도를 옮겨간 1인 가구 중 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지역은 서울이 4만5098가구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 순위인 충남(3888가구)과도 차이가 컸다. 많은 청년들이 직장을 찾아 서울로 이동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1인 가구 중 31%는 주택소유...12평 이하에 거주

1인 가구는 주로 단독주택(41%)에 살았고, 그다음 아파트(34.0%), 연립·다세대(11.7%)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대는 아파트 비중이 높았고, 그외 연령대는 단독주택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1인 가구 중에서도 주택을 소유한 비율은

30.9%로, 70세 이상이 48.8%로 가장 높았다. 1인 가구의 주택소유율은 전체 가구 56.2%보다 25.3%p 낮은 수준이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 절반 이상(54.6%)은 12.1평(40㎡) 이하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평균 주거면적은 13.4평(44.4㎡)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 주거면적(68.3㎡)의 65% 수준이었다.

주택과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1인 가구의 82.7%가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주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응답한 항목은 주택 내부 소음(35.2%), 주택 외부 소음(26.1%), 채광상태(18.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의 30.8%는 주거지원 프로그램 중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가장 원했다.

◆1인 가구 61%는 연소득 3천만원 미만...월지출 155만원

지난해 취업자 1인 가구는 455만5000가구로 전년 대비 20만4000가구 증가했다. 연령별 비중은 50~64세가 26.2%로 가장 높았으며, 30대(23.5%), 15~29세(20.5%) 순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산업별 비중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1.0%), 도소매·숙박음식점업(18.6%) 등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3.9%), 사무종사자(16.5%), 단순노무종사자(15.4%) 순으로

비중이 컸다.

1인 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7.0시간으로 전년 대비 0.8시간 감소했다.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01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했다. 이는 전체 가구(6762만 원)의 44.5% 수준이다.

소득원천별 비중은 근로소득이 60.5%로 가장 높았고, 사업소득(15.8%), 공적이전소득(13.5%)이 그 뒤를 이었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1인 가구의 61.3%는 연소득이 3000만원 미만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1000만원~3000만원 미만이 44.5%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 미만이 16.8%를 차지했다.

1인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은 155만1000원으로 전체 가구(264만원)의 58.8% 수준이었다. 품목별 소비를 보면 음식·숙박이 17.8%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주거·수도·광열 17.6%, 식료품·비주류음료 12.6% 순이었다.

올해 1인 가구의 자산은 전년 대비 0.8% 감소한 2억949만 원으로, 전체 가구(5억2727만 원)의 39.7%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채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3651만원으로 전체 가구(9186만원)의 39.7% 정도였다.

1인 가구의 24.3%는 소득에, 19.6%는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만족했다.

◆월평균 보건지출은 12.9만원...56%는 노후비 직접 마련

지난해 1인 가구의 월평균 보건지출은 12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10가구 중 7가구(72.6%)는 1인 가구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1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인 가구의 55.7%는 본인 및 배우자 부담으로 노후생활비를 마련한다고 응답했고, 그 외에는 정부 및 사회단체(29.6%), 자녀·친척 지원(14.8%)도 뒤를 이었다.

2013년 이후 1인가구의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과 정부 및 사회단체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자녀·친척 지원은 감소하는 추세다. 2년 전과 비교하면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은 비중이 증가한 반면, 자녀·친척 지원, 정부 및 사회단체는 감소했다.

1인 가구 중 67.8%는 몸이 아플 때, 74.3%는 우울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했다.

1인 가구는 전체 인구에 비해 동영상이 콘텐츠 시청(77.9%), 휴식(73.4%) 등 정적인 활동으로 여가를 보내고 있었다.

1인 가구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4.5시간, 주말 6.3시간이었다. 1인 가구의 38.8%는 월평균 여가활동 비용이 15만 원 이상이 었다.

여가생활 만족도는 31.8%로 2년 전보다 9.0%p 높아졌다.

김수권기자

‘글라스락 홀리데이 에디션’ 출시...“내달 2일까지 할인”

와인잔, 하이볼키트 등 신제품 기획전 진행



SGC솔루션이 연말 시즌을 맞아 크리스마스 와 연말을 더욱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글라스락 홀리데이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와인잔, 하이볼 키트, 플레이트 세트 등의 크리스마스 에디션과 다양한 고블렛을 세트 구성한 고블렛 선물세트로 선보인다.

먼저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미드나잇 와인잔’, ‘화이트나잇 와인잔’, ‘하이볼 키트’, ‘스노우볼 고블렛’, ‘윈터볼 고블렛’, ‘세프토프 스위트 플레이트 세트’를 출시했다. 투명한 블랙 색상의 미드나잇과 심플한 화이트나잇으로 구성된 와인잔은 기본 와인잔보다 낮은 높이와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됐다.

하이볼 키트는 400ml의 하이볼 유리잔과 전용 얼음을 머물러로 구성된 세트 제품이다. 곡선 라인의 잔에 겨울을 연상시키는 불 디자인으로 포인트를 준 고블렛은 각각 화이트와 블루 컬러로 구성됐다. 글라스락 세프토프의 스위트 플레이트 세트는 부드럽고 모던한 화이트 디자인의 트레이와 불 세트 구성이다.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함께 선보이는 글라스락 고블렛 선물세트는 다양한 디자인을 담은 고블렛 잔을 2개 세트 구성했다. 각각 ‘가이아 고블렛’, ‘엘로이 고블렛’, ‘페이즐리 고블렛’, ‘데이아 고블렛’, ‘다프네 고블렛’이다. 이외에 음료에 어울리는 아이스볼을 만들 수 있는 ‘세프토프 프리징볼 트레이’도 함께 선보인다.

글라스락 공식몰에서는 이번 홀리데이 에디션 출시를 기념해 내달 2일까지 30% 할인 혜택을 적용한 기획전을 실시한다. 글라스 전 품목은 테이프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환경 친화적인 포장재로 구성된 특별 패키지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시 5% 추가 적립금을 지급한다.

서선욱기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시몬스 숙면 아이템’



시몬스가 연말 시즌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프리미엄 숙면 아이템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시몬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시몬스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 ‘뷰티레스트’부터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N32’의 폼 매트리스·레굴러 토퍼, ‘뷰티레스트 비스코 포켓스프링 베개’까지 50여 가지의 숙면 아이템으로 구성됐다. 검색창에 ‘시몬스’를 입력하거나, 홈 상단 ‘브랜드’ 탭의 ‘리빙·주방·꽃베개’ 테마에서 ‘가구·DIY’를 선택해 찾을 수 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제품은 ‘N32 레굴러 토퍼’로, 3개 묶음 구매 시 35%, 2개 묶음 구매 시

33%의 할인 혜택을 선사한다. N32 레굴러 토퍼는 시몬스 고유의 ‘레이어링’ 기술이 적용됐다.

국내 토퍼 매트리스 가운데 유일하게 라돈·토론 안전제품 인증과 난연 매트리스는 물론 환경부의 국가 공인 친환경 인증을 모두 취득했다.

‘N32 폼 매트리스’는 10% 할인 혜택을 선사한다.

N32 폼 매트리스는 ▲통기성 ▲탄성 ▲안전성 등 세 가지 차별점을 갖추며 기존 폼 매트리스의 고질적인 단점인 열감과 꺼짐 및 솔림 현상 등을 해소했다. 더불어 100여 가지에 달하는 시몬스의 프레임과 50여 종의 베딩과 혼용할 수 있다.

숙면 베개로 잘 알려진 ‘뷰티레스트 비스코 포켓스프링 베개’도 묶음 구매 시 27%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비스코 포켓스프링 베개는 시몬스 고유의 포켓스프링 기술이 동일하게 적용된 제품이다.

이외에도 시몬스의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 ‘뷰티레스트’의 인기 모델 ‘자스민’, ‘바이브’, ‘퓨전’, ‘허브’, ‘텐저린’, ‘레이븐’을 33% 특별한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 ‘스위트’, ‘시트러스’, ‘하늘’ 등도 31%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이슬비기자

‘웅진주니어 겨울방학 온라인연수’ 실시

교육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독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웅진씽크빅이 ‘2024 웅진주니어 겨울방학 온라인 연수’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웅진주니어 겨울방학 온라인 연수’는 교사, 사서 등 교육기관 관계자 및 아이 교육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어린이 독서 교육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는 연수 프로그램이다. 교육 현장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위한 독서지도’, ‘글 없는 그림책의 이해’, ‘책 읽는 교실로 자라는 동화수업’ 등 3개의 강의 섹션으로 구성됐다.

각각 김영아 한국그림책심리학회장, 임민정 그림책주 대표, 이시내 김포기현초등학교 교사가 강연자로 참가한다.

연수는 내년 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라인 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진행된다.



참가 비용은 3만5000원으로, 수강자에게는 웅진주니어 도서 2권을 증정한다.

내년 1월8일까지 웅진주니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연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오유나기자

“복잡해 포기” 개선했더니...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률 18%p ↑

고용정보원, 고용보험 신청서 온라인 이용패턴 분석
“작성 어렵고 입력 내용 많아” 중도 이탈...전면 개선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온라인 신청이 가장 많은 ‘실업급여’와 관련해 신청 포기 등 저해 요인을 개선한 결과,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률이 18%포인트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용보험 민원 신청서의 온라인 이용 패턴을 분석,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석은 지난해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1240만 건을 선정해 웹 서버의 기록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온라인 신청서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도에 이탈한 이용자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사유 데이터도 수집·분석했다.

분석한 내용을 보면 온라인 신청 시 특정 단계에서 신청을 완료하지 않고 중도 이탈한 사유는 작성이 어렵거나 입력 내용이 많으며 제출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서 등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용정보원은 이용자들이 어려워하는 단계를 확인해 개선 사항을 도출한 뒤 담당 및 전산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개선에 나섰다.

그 결과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률은 기존

57.8%에서 75.7%로 17.9% 상승했으며, 실업급여 민원 전화는 일평균 315건에서 227건으로 12.1% 감소했다고 고용정보원은 설명했다.

고용정보원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이용 패턴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의 적용 범위를 넓혀 ‘워크넷 구인 신청서’ 등 7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신청서 간소화, 법정 용어 및 신청 절차 변경 등 세부 개정 사항도 발굴할 예정이다.

김영중 고용정보원 원장은 “앞으로도 개선 모델을 발전시켜 고용정보망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 적용하고, 궁극적으로 민원 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